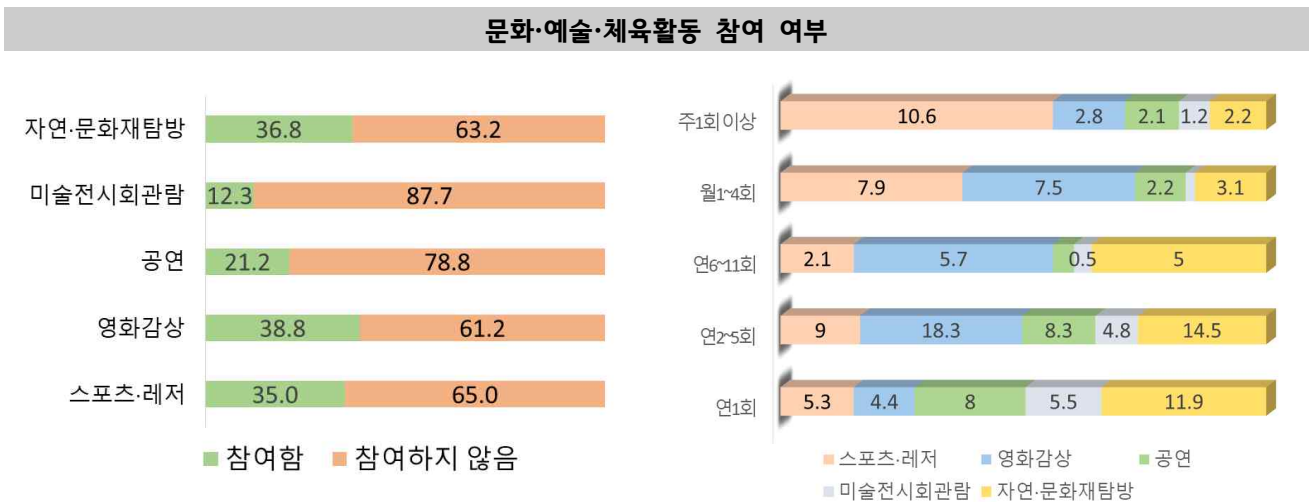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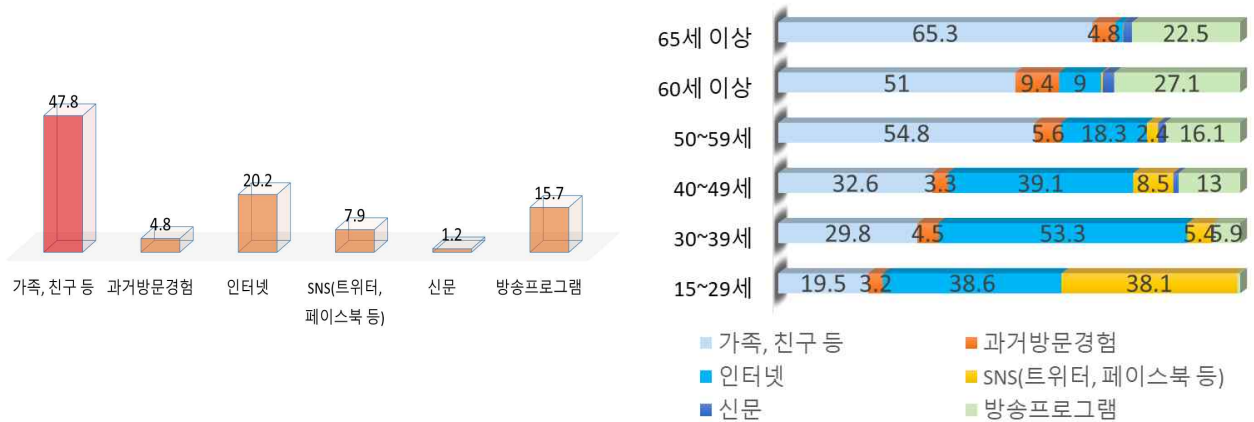
## 10. 여가, 문화

- ▶ 곡성군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활동은 「영화감상(38.8%)」이며 「미술 전시회 관람(12.3%)」이 가장 적음
- ▶ 곡성군민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참여 횟수는 「영화감상」은 「연2~5회(18.3%)」가 가장 많으며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은 「주1회 이상(10.6%)」, 「공연(연극, 음악회 등)관람」은 「연2~5회(8.3%)」, 「미술 전시회 관람」은 「연1회(5.5%)」, 「자연·문화재 탐방」은 「연2~5회(14.5%)」가 가장 많음



- ▶ 곡성군민이 전라남도 관광지를 여행지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자연 및 풍경 감상(68.9%)」이며, 전라남도 관광지에 대해 만족한 주된 이유도 「자연경관(69.5%)」 때문임
- ▶ 곡성군민이 전라남도 관광지 또는 여행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득하는 경로는 「가족, 친구 등(47.8%)」이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은 「가족, 친구 등」이 젊은 연령은 「인터넷(20.2%)」이 주된 경로임

[관광정보 취득 경로]



- ▶ 군민이 지난 1년( '16. 8. 31.~ ' 17. 8. 30.) 동안 읽은 책 권수는 평균 「2.5 권」이며 , 남자는 「2.8권」 , 여자는 「2.2권」 을 읽었음.
- ▶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41.7%가 부족(부족한 편이다+매우 부족하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독서량이 부족한 주된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48.0%)」 와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36.2%)」 로 나타남

# 10. 여가 · 문화 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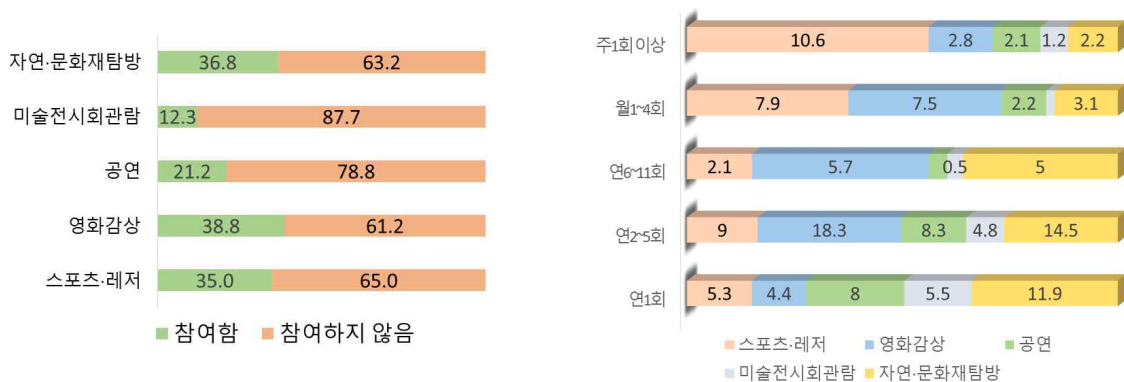
- 10 - 1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 10 - 2 관광지 선택 이유 및 만족한 점
- 10 - 3 관광정보 취득 경로
- 10 - 4 독서 여부 및 독서량
- 10 - 5 독서량 부족 이유

## 10 - 1.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가장 많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활동은  
「영화감상(38.8%)」, 「미술 전시회 관람(12.3%)」이 가장 적어

-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는 전 분야에서 「참여함」 보다 「참여하지 않음」이 많음
- 영화감상이 38.8%로 가장 높고, “참여 횟수”는 「연2~5회(18.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술·전시회 관람은 12.3%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며, “참여 횟수”는 「연 1회(5.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은 35.0%가 참여, 「주1회 이상(10.6%)」의 참여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연활동은 21.2%가 참여, 「연 1회(5.5%)」의 참여 횟수가 높게 나타남
- 자연문화재탐방은 36.8%가 참여, 「연 2-5회(14.5%)」의 참여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 여부]



<표 10-1~5>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

(단위: %)

	계	연1회	연2~5회	연6~11회	월1~4회	주1회 이상	없음
<활동유형별>							
스포츠·레저	100.0	5.3	9.0	2.1	7.9	10.6	65.0
영화감상	100.0	4.4	18.3	5.7	7.5	2.8	61.2
공연	100.0	8.0	8.3	0.6	2.2	2.1	78.8
미술전시회관람	100.0	5.5	4.8	0.5	0.4	1.2	87.7
자연·문화재탐방	100.0	11.9	14.5	5.0	3.1	2.2	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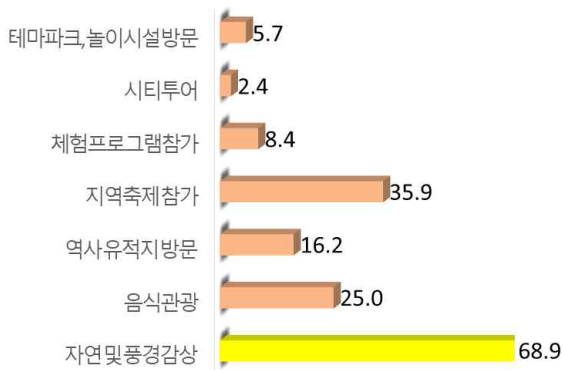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 10 - 2. 관광지 선택 이유 및 만족한 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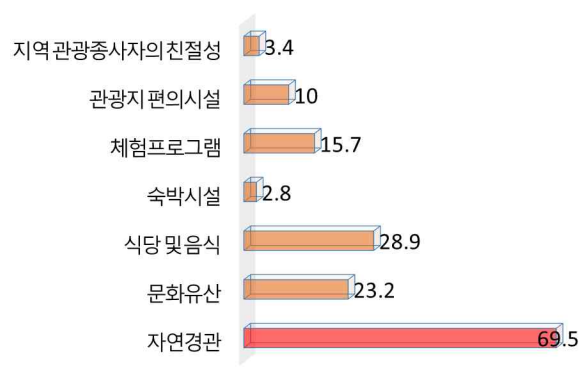
전라남도 관광지 선택 이유는「자연 및 풍경감상(68.9%)」,  
전라남도 관광지 만족한 점도「자연경관(69.5%)」

- 전라남도 내 관광지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자연 및 풍경감상」이 6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축제참가(35.9%)」, 「음식관광(25.0%)」, 「역사유적지방문(16.2%)」, 「체험프로그램참가(8.4%)」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관광지 선택 이유”는 「자연 및 풍경감상」이 가장 높고 「지역 축제 참가」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관광지 선택 이유”는 「자연 및 풍경감상」이 가장 높고 「지역 축제 참가」가 2순위로 나타남
  - 옥과권은 전라남도 내 “관광지 선택 이유”로 「자연 및 풍경감상」이 가장 높고 「지역 축제 참가」와 더불어 「음식관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곡성군민의 전남도내 “관광지 만족한 점”으로 「자연경관」이 69.5%로 가장 높고, 「식당 및 음식」이 28.9%, 「문화유산」이 23.2%로 나타남.

[전라남도 관광지 선택 이유]



[전라남도 관광지 만족한 점]



<표 10-9> 관광지 만족한 점(복수응답)

(단위: %)

구분	자연경관	문화유산	식당 및 음식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편의시설	지역 관광종사자의 친절성	기타
2015년	76.3	25.3	39.6	10.7	17.7	18.5	5.3	0.3
2017년	69.5	23.2	28.9	2.8	15.7	10.0	3.4	3.1
<지역별>								
곡성권	74.2	24.0	25.8	3.4	11.7	10.1	2.8	1.8
석곡권	62.2	27.6	37.9	2.9	14.6	10.4	3.3	3.7
옥과권	67.8	19.8	27.5	2.1	21.3	9.6	4.1	4.4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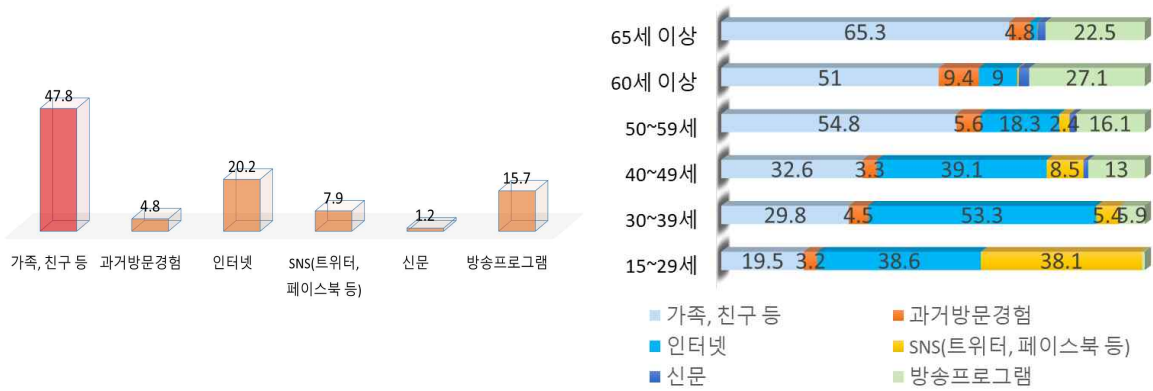
### 10 - 3. 관광정보 취득 경로

전라남도 내 관광정보 취득경로는「인터넷」과「가족, 친구 등」을 활용  
19-29세는「인터넷」, 60세 이상에서는 가족, 친구 등」

• 곡성군민의 “관광정보 취득경로”는 「가족, 친구(47.8%)」「인터넷(20.2%)」

- 년도별 비교에서 「SNS」와 「방송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증가함
- 지역별로는 관광정보 취득 경로가 곡성권과 옥과권은 「가족, 친지」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석곡권에서는 「가족, 친지」 다음으로 「SNS」, 「과거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9~49세는 “관광정보 취득경로”로 「인터넷」이 가장 높고, 50세 이상은 「가족, 친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19-29세에서는 「인터넷」이 60세 이상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관광정보 취득 경로]



<표 10-10 > 관광지 정보 취득경로

(단위: %)

구분	계	가족·친구 등	과거 방문 경험	인터넷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문	방송 프로그램	기타
2015년	100.0	55.5	6.3	26.5	2.9	0.8	7.7	0.3
2017년	100.0	47.8	4.8	20.2	7.9	1.2	15.7	2.2
<b>&lt; 지역별 &gt;</b>								
곡성권	100.0	48.7	2.7	26.0	4.5	0.7	15.7	1.7
석곡권	100.0	45.1	11.3	8.4	12.4	1.2	18.1	3.5
옥과권	100.0	48.2	3.9	20.0	9.6	1.9	14.2	2.2
<b>&lt; 성별 &gt;</b>								
남자	100.0	43.0	5.6	24.4	7.2	1.5	16.5	1.7
여자	100.0	52.4	4.1	16.3	8.6	1.0	14.9	2.7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 10 - 4. 독서 여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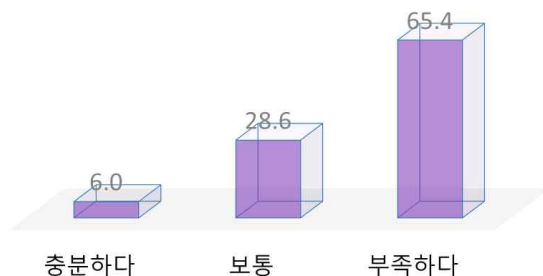
「연 평균 읽은 책 권수」는 여자 2.2권 남자는 2.8권이며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65.4%가「부족」하다고 생각

- **지난 1년 동안 곡성군민의 「평균 읽은 책 권수」는 2.5권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평균 읽은 책 권수」는 곡성권(2.5권), 옥과권(2.9권), 석곡권(1.8)권으로 나타남
  - 성별로 「평균 읽은 책 권수」는 여자(2.2권)가 남자(2.8권)보다 적게 나타남
  - 연령별로 30~39세의 「평균 읽은 책 권수」는 5.5권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60세 이상은 1.3권, 65세 이상은 0.6권으로 나타남. 19~29세는 「5.0」 권으로 조사됨
-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로 「매우 부족하다」는 41.7%로 가장 높고, 「부족한 편이다」는 23.7%로 나타남.**
  - 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로 65.4%이상이 「부족하다(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함
  - 연령별로 「19~29세」의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는 50.8%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65세 이상」은 74.6%로 나타남.

연령별 평균 읽은 책 권수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표 10-11> 독서여부 및 만족도

(단위: %)

구 분	평균 읽은 책 권수	계	충분하다			보통	부족하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부족하다	부족한 편	매우 부족
2017년 <지역별>	2.5	100.0	6.0	2.2	3.8	28.6	65.4	23.7	41.7
곡성권	2.5	100.0	6.2	3.0	3.2	21.3	72.5	34.2	38.3
석곡권	1.8	100.0	8.0	1.6	6.4	36.9	55.1	17.3	37.9
옥과권	2.9	100.0	4.6	1.6	3.0	32.9	62.5	14.3	48.2
<성별>									
남자	2.8	100.0	8.3	2.5	5.8	30.8	60.9	23.0	37.8
여자	2.2	100.0	3.8	1.9	1.9	26.6	69.6	24.3	45.4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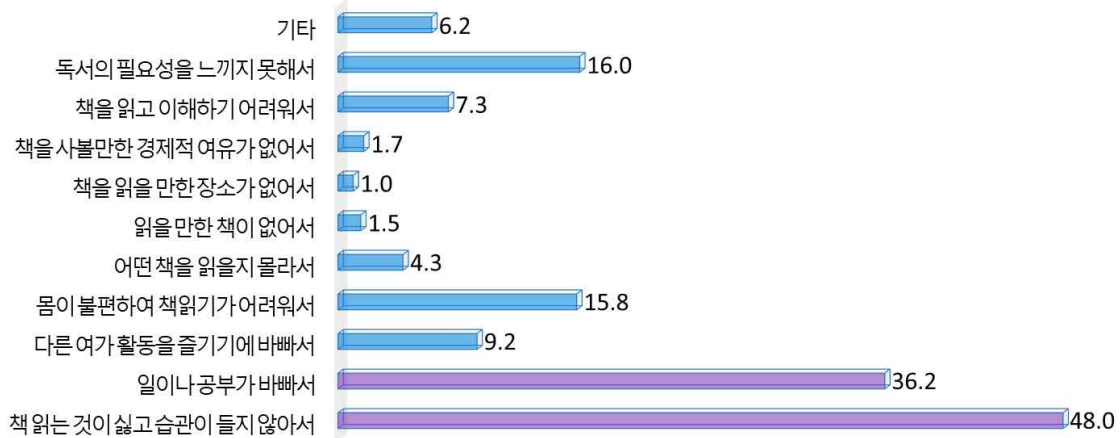
## 10 - 5. 독서량 부족 이유(복수응답)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48.0%)」와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36.2%)」

-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책을 읽지 못한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36.2%)」,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6.0%)」,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15.8%)」,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9.2%)」 순임

- 연령별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외의 응답을 살펴보면, 60세 이상까지는 "독서 부족 이유"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가 가장 높고, 「65세 이상」은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42.4%로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가 30.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독서량 부족 이유(복수응답)]



<표 10-12>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책을 사볼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2015년	45.9	37.4	8.9	15.8	6.1	2.9	1.7	3.4	5.9	19.8	5.3
2017년	48.0	36.2	9.2	15.8	4.3	1.5	1.0	1.7	7.3	16.0	6.2
<지역별>											
곡성권	47.9	35.7	11.4	17.5	3.8	0.8	1.2	2.5	9.5	12.5	2.3
석곡권	54.5	15.9	4.0	18.9	6.0	0.9	1.2	1.8	9.1	30.1	8.6
옥과권	44.9	47.2	8.8	11.8	4.4	2.8	0.8	0.7	3.3	14.0	10.6
<성별>											
남자	53.2	42.0	11.6	11.8	4.3	1.2	1.0	3.0	4.9	17.0	-
여자	43.7	31.4	7.3	19.0	4.4	1.7	1.0	0.7	9.3	15.3	-

※자료: 2017년 전라남도·곡성군 사회조사